

사회과교육에서 존 듀이 다시 읽기 : 경험, 탐구, 민주주의 이론의 입체화

서 용 선

경기도교육연구원

I. 기존의 듀이 읽기 : 파편화된 범주와 닫힌 맥락

듀이(1859-1952)는 19세기에 태어나 20세기 중순까지 2차 이민, 제1,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냉전 등 세기의 격동기를 거치며 긴 세월을 살았다. 그는 다양한 방면에서 이론을 펼치면서도 실질적인 현실의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실천가였다. 이론적으로는 교육학, 철학, 논리학, 심리학, 정치학, 미학 등을 넘나들며 자신의 이론을 정립했고, 이는 37권의 전집¹⁾과 700여 편이 넘는 방대한 논문에 실렸다. 실천적으로는 시카고 대학교 부설 실험학교 설립과 운영 등 왕성한 교육활동은 물론 사회복지 운동과 정치 활동도 활발히 했다. 여러 교육단체, 시민단체, 정당 건립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잘 알다시피, 듀이는 1916년 사회과교육의 탄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의 주저 『민주주의와 교육』(1916a)이 출간된 1916년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기존의 사회과교육학자들도 사회과교육에 미친 듀이의 영향이 지대했다고 지적하였다(Gregg, 2012; Parker, 2002; Ross, 1997; Saxe, 1991; Engle · Ochoa, 1988; Barr · Barth · Shermis: 1977). 1916년 사회과 보고서를 둘러싼 시민성의 논쟁과 탄생에 그가 있었고, 사회과교육의 구성 논리, 교육목적, 내용과 방법, 사고와 활동 등 전반적인 국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서용선, 2008). 과거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진보주의 교육운동의 근간이었고, 현재 쟁점 중심 사회과교육에서도 기원으로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과교육은 듀이에 대한 적잖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²⁾. 양적으로 보아도 사회과교육 관련 학회의 학술논문 총 건수는 5건에 불과하다. 그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반성적 탐구와 가치 재구성(2013)’, ‘실험학교에서의 사회과교육(2007)’, ‘사회과교육에서 교육이론의 해석 양상(2007)’, ‘반성적 사고에 따른 사회과 수업 구성(2003)’, ‘가치 명료화 모형의 토대(1994)’가 그것이다.

듀이와 사회과를 적시한 학위논문은 5편이 있다. 주제를 보면, ‘반성적 탐구 모형의 교육적 한계와 대안적 탐구 모형(2012)’, ‘듀이의 교육론을 적용한 활동 중심 교육방법(2012)’, ‘듀이의 민주주의 교육론과 쟁점 중심 사회과(2010)’, ‘듀이의 관점에서 본 초등사회과 재구성(2010)’, ‘미군정기 사회생활과 도입 과

1) 존 듀이의 전집은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져 있고, 저작 인용은 다음과 같은 약호로 제시한다. EW *The Early Works*(1882~1898), MW *The Middle Works*(1899~1924), LW *The Later Works*(1925~1953)

2) 학술논문은 사회과교육 관련 학회 홈페이지, 학위논문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구글에서 검색했고, 검색어는 ‘사회과’와 ‘듀이’였다. 우리나라 학술논문 검색에서는 한국사회과교육학회 6건,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는 2건, 한국사회과교육학회는 1건이 나왔다. 이 가운데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 논문과 필자의 줄고는 제외하였다.

정(1993)'이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들어 사회과교육에서 듀이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고 큰 맥락을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해외에서는 이보다 깊고 폭넓은 이해와 반응을 보여준다. 사회과교육의 세 가지 전통을 말했던 Barr-BarthShermiss(1977)는 책 중간 표지에 듀이의 얼굴과 함께 그의 주저 『사고하는 방법』(1910)과 『민주주의와 교육』(1916a)을 강조했다(14, 24). 사회과를 민주시민교육으로 간주하고 의사결정 교육을 강조한 Engle-Ochoa(1988)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민주주의를 깊이 있게 만드는 사상적 근원에 듀이를 핵심으로 놓았다(65, 130). Ross(1977)는 통합적이고 협력 중심의 사회과 프로젝트 학습법과 이와 연관된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구성에 듀이 철학을 근간으로 삼았다(11-12). Saxe(1991)는 1916년 사회과 보고서 전반과 '지역사회 시민'나 '민주주의의 문제' 과정,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한 듀이의 영향을 심도 깊게 보고했다(22, 175). 실제 '지역사회 시민' 과정에서는 지역사회 복지가, '민주주의의 문제' 과정에서는 사회적 마음이 사회과교육 실천에서 부각된다(서용선, 2008: 215-220).

최근 쟁점 중심 사회과에 대한 부상으로 듀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Evans-Saxe(1996)는 쟁점 중심 사회과교육 접근을 한 학자 가운데 가장 듀이를 먼저 앞세우고, 쟁점 중심 사회과교육 이론, 교육과정, 교수를 개발하고 정교화 시킨 인물로 표상했다(5, 12). 더 나아가 Evans(2004)는 사회과교육을 여러 진영 간의 전쟁으로 표현하면서, 듀이를 학습자의 반성적 사고와 사회 개선에 초점을 맞춘 사회개량주의 진영으로 크게 부각시켰다. 더불어 그는 듀이를 최근 다시 부각되고 있는 사회재건주의나 비판교육학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1, 113, 161). 이는 생활세계 안에 있는 공론장에서 해방적 인식관심에 초점을 맞춰 합리적 의사소통을 시민성 교육에 뿌리내리려고 하는 하버마스의 시민교육과도 매우 근접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서용선, 2013b).

듀이와 사회과교육 사이의 연관성이 적시된 논문과 단행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논문에는 '쟁점 중심 사회과교육의 도덕적 문제들: 토대의 안내자로서의 듀이 발견하기'(2013, Gregg) '사회과, 존 듀이, 그리고 역사의 침식'(2013, Patrick)', '더 지적인 시민성의 개발 : 존 듀이와 사회과'(Carpenter, 2006), '존 듀이와 사회과 교육과정'(Eagan, 1980)', '듀이, 교육에서 사회과의 역할'(1977, Stanley-Stanley) 등이 있다. 단행본에는 '듀이의 사회와 정치철학이 사회과교육에 주는 함의'(Shermiss, 1961) 이후 최근에 발간된 '존 듀이와 사회과의 새벽 : 1916년 보고서를 둘러싼 해석의 갈등 풀기'(Gregg, 2012)가 그것이다.

이러한 흐름을 볼 때, 듀이 주저에 대한 깊은 분석과 듀이 사상 전반에 걸친 보다 넓은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국내에서는 반성적 사고, 가치 명료화, 민주주의, 실험학교 등에 좁혀져 있고 연관 맥락도 아직 찾기는 어렵다. 해외에서도 1916년 사회과 보고서나 쟁점 중심 사회과교육 등을 통해 보다 포괄적이고 연관 맥락이 넓고 깊게 보이지만 여전히 역동적 범주화에는 못 미친다. 여기서는 사회과교육에서 듀이를 어떻게 다시 읽어야 할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과교육에서 듀이의 주저 『민주주의와 교육』(1916a)을 심도 깊게 읽어야 한다. 『사고하는 방법』(1910), 『경험과 교육』(1938a)도 주요 저서이다. 그래도 무엇보다 1916년이 사회과교육의 탄생기이고 듀이의 교육 이론과 실천의 집약기라고 보았을 때, 『민주주의와 교육』을 시민성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내적 역동성을 읽어낼 수 있었으면 한다. 둘째, 사회과교육에서 듀이를 철학으로 읽어야 한다. 듀이의 사상은 온전히 프래그마티즘 철학에 놓여 있다. 프래그마티즘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사회과교육에 저수지 역할을 할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과도 맞닿아 있는 듀이의 프래그마티즘은 21세기 사회과교육을 위한 새로운 논리가

창출되고 의미 있는 돌파구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 듀이 사상을 이론적으로 범주화시켜 읽어야 한다. 그 이론은 경험 이론, 탐구 이론, 민주주의 이론으로 범주화시킬 수 있다. 이 세 가지 이론의 구분은 사회과교육을 중심에 두고 생애에 걸쳐 펼쳐진 그의 이론을 범주화한 것이다. 넷째, 사회과교육에서 듀이 사상의 흐름을 시민성의 속성으로 읽어야 한다. 속성은 듀이의 세 가지 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데, 경험 이론에서는 질적 직접성(qualitative immediacy), 탐구 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성(social intelligence),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정치적 창조성(political creativity)이 제시될 것이다. 이상의 네 가지 읽기 방식은 미시와 거시, 이론과 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II. 『민주주의와 교육』 다시 읽기 : 시민성교육의 정수

사회과교육자들은 듀이를 언급할 때, 주로 『민주주의와 교육』(1916a)을 통해 말한다. 물론 반성적 사고나 문제해결에 대한 논의를 할 때는 『사고하는 방법』(1910)을 통해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교육』에 이미 이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다. 실제 『민주주의와 교육』은 사회과교육에서 듀이를 좁게 보거나 애매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새로 보고 다시 읽게 하는 텍스트다. 이 책에서 듀이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와 철학과 교육을 등가로 놓기 위해 큰 도전을 한다. 이는 서문에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민주 사회에 작용하는 이념을 추출하여 그 이념을 교육의 실제 문제에 적용해보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 이 책에 진술된 철학이란 민주주의의 성장을 과학의 실험적 방법, 생물학적 진화론, 그리고 산업의 제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이러한 방면의 발달이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지적하는데 관심을 둔다.” (MW9: 3)

사회과교육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철학과 교육을 엮어내는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분절화 된 26개의 장을 <표 1>과 같이 시민성의 관점에서 범주화하고 흐름을 만드는 것이다.

<표 1> 『민주주의와 교육』의 구분

장	구분	내 용		
1~4	교육의 개념적 특징	삶의 필연성으로서의 교육 지도로서의 교육		사회적 기능으로서의 교육 성장으로서의 교육
5~7	교육의 비판적 재구성	준비설, 발현설, 형식도야설 형성, 반복설, 과거지향 교육 플라톤 교육	⇔	성장으로서의 교육 재구성으로서의 교육
		18세기 개인주의 교육 19세기 독일교육	⇔	민주주의로서의 교육
8~9	교육의 목적	자연적 발달	사회적 효율성 (시민성)	교양

10~13	교육의 방법	흥미와 도야 교육에서의 사고	경험과 사고 방법의 성격
14~18	교과와 교육과정	교과의 성격 지리와 역사의 의의 교육적 가치	교육과정에서의 일과 놀이 교과로서의 과학
19~23	교육 현실의 문제	노동과 여가 자연과와 사회과 : 자연주의와 인문주의	이론적 교과와 실제적 교과 개인과 세계 교육의 직업적 측면
24~26	결론	교육철학 도덕의 이론	지식의 이론

이러한 구분은 교육목적을 시민성에 초점을 맞춰 재구성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교육』은 성장, 재구성,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 시민성을 중심에 놓고 교육의 특징과 여러 비판, 교육의 내용과 방법, 교과와 교육과정, 현실의 문제 등으로 구조화된다. 공동생활(associated living)의 양식이고, 경험을 전달하고 공유하는 방식(conjoint communicated experience)”으로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MW 9: 87)를 강조한 것도 듀이가 시민성을 핵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듀이는 ‘공동생활’에 대해 “이것은 대체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생활 그 자체’에 대한 관념”(LW2: 328)이라고 말한다. ‘경험에 대한 전달과 공유’에 대해서는 그의 경험 이론을 통해 제시된 계속성과 상호작용 등의 원리와 연관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듀이는 생활양식이 다른 대체물이 아닌 시민들의 민주적인 생활과 경험을 본위에 두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사회적 효율성’ 개념은 듀이가 말한 시민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듀이는 기존의 학교교육에서 강조하던 사회적 효율성을 비판하고 재구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적 효율성은 소극적인 억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서 얻어진다. 그렇게 인식되었을 때, 사회적 효율성을 위한 교육은 적절한 것이 된다.” (MW9: 125)

듀이는 개인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공동생활의 활동이 달라진다고 본다. 경제적 상황과 표준을 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유용한 방식으로 경제적 자원을 관리하는 산업적 효율성이 아닌 ‘시민적 효율성(civic efficiency)’이나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 차원의 사회적 효율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시민성과 사회적 효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민성에는 ‘친구로서 사귀고 싶은 사람’이라는 자질로 출발하여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시민성에 이르는 모든 특성이 포함된다. 또한 그것은 사람과 물건의 가치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능력과 법률을 만들고 준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능력 등을 의미한다. ... 사회적 효율성은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 있는 경험에 보다 풍요

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예술 작품을 제작하고 감상하는 능력, 오락을 즐기는 능력, 여가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능력 등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것 이상으로 시민성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MW9: 127)

『민주주의와 교육』을 시민성 중심으로 본다면, 다양한 차원의 교육영역은 어떻게 구체화될까? 듀이는 ‘마음의 사회화’와 ‘사회봉사’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사회화된 마음은 공동의 집단 상황에서 사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를 이해하는 힘이다. 그리고 마음을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마음은 곧 사회통제의 방법이다.” (MW9: 38)

“만약 다른 개인에게 각각 다른 관심과 이익을 준다는 사실에 대해 적극적인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선택에 대해 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 전체를 위해 유용하다는 확신을 하지 않는다면, 사회봉사라고 하는 것은 경직된 금속과 같은 것이 되고 만다.” (MW9: 128)

민주주의와 철학과 교육을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시민성으로 수렴하면서, 마음의 사회화와 사회봉사로 연계시키고 있는 점은 사회과교육의 방향 설정에서 주목할 대목이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읽기 방식은 듀이를 프래그마티즘이라는 저수지에서 읽는 것이다.

Ⅲ. 프래그마티즘 철학으로 다시 읽기 : 경험, 탐구, 민주주의의 융합

사회과교육에서 듀이를 읽을 때 그의 철학인 프래그마티즘으로 읽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과교육 탄생에 듀이가 미친 영향을 생각해보면, 이는 교육철학의 수준을 넘어서는 철학 일반의 논의가 깔려 있다. 실제로 단순한 교과교육 담론을 벗어나 거시적으로 듀이의 시민성 개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지점이 ‘프래그마티즘 철학’이다.

듀이는 스스로 행한 모든 것의 근저에는 프래그마티즘이 놓여 있다고 고백했다(Menand, 김동식·박우석·이유선 역, 2001: 26). 실제 프래그마티즘이 실질적이고 국제적인 시민성의 발달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Hickman, 2007: 46). 실제 프래그마티즘의 특징으로 ‘반정초주의’, ‘비판 공동체’, ‘우연성과 불확실성’, ‘의심-믿음과 탐구의 양식’, ‘직접적 경험의 존재론’, ‘사실-가치 관계’, ‘교호작용’(Ryan, 2004: 16-24)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이 나오기 까지 프래그마티즘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여러 사상가를 거쳤고 듀이 이후에도 네오 프래그마티즘(Neo-pragmatism)과 비판적 프래그마티즘(critical pragmatism)으로 이어가고 있다. 중간에 분석철학 등의 흐름 속에서 침체되었지만 최근 듀이 사상을 재해석하면서 프래그마티즘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서용선, 2008).

듀이의 프래그마티즘에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사상가는 퍼스(Charles Sanders Peirce, 1839~1914),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 미드(George Herbert Mead, 1863~1931)이다. 이들은 개별적인 프

래그마티즘을 주장했지만, 듀이는 이들의 사상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의 교육철학에 논리학, 심리학, 사회학, 정치학이 깊게 배어들었고, 이 지점이 사회과교육에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먼저 퍼스는 ‘프래그마티즘’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미완성 원고이지만 1904년경 “프래그마티즘의 정의”라는 논문이 사후에 유고집으로 출판되면서 프래그마티즘 사상의 일면을 세상에 알렸다. 그는 유럽철학, 공리주의, 실증주의 등을 융합하면서 ‘행위 제일주의’를 내세우고, 행위의 우월성에 대해 과학적인 논리학을 강조했다. ‘개념의 명석화 원리’나 ‘과학적 탐구의 원리’가 그가 말한 원리이자, 프래그마티즘 준칙이다.

퍼스는 논리학을 거쳐 형성된 과학과 탐구를 프래그마티즘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의 모든 추종자들이 탐구의 과정을 충분히 추구하면,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특정 해답을 얻을 것이다.”(Peirce, 김동식·박우석·이유선 역, 2001: 92-93) 이후 퍼스는 ‘탐구(inquiry)란 무엇인가’에 집중하면서 탐구가 믿음과 의심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했다. 그에 따르면, 투쟁과 같은 탐구는 이미 알려진 것과 관찰된 사실로부터 출발해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아간다. 그는 믿음으로부터 행위의 규칙이 드러나고, 탐구를 통해 사고하면서 적합한 행위를 산출한다. 퍼스는 여기서 나아가 개인의 과학적 탐구와 방법을 넘어서 공동체나 국가가 나서서 탐구를 완성시키고자 했다. 듀이가 주목한 것도 바로 퍼스의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이었다.

제임스(1842~1910)는 프래그마티즘을 새로운 변화를 도모한 사상가였다. 퍼스가 과학적이고 논리학적인 객관성을 강조한다면, 제임스는 심리학적이면서 종교철학적인 주관성을 부각시켰다. 1898년 제임스가 버클리 대학에서 행한 “철학적 개념과 실천적 결과”라는 연설을 통해 스스로를 프래그마티스트라고 알렸고, 이로부터 프래그마티즘이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Bernstein, 2004: 27-28). 듀이 같은 경우, 제임스의 『심리학의 원리』(1890)를 통해 프래그마티즘의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었다(Sleeper, 1986: 81).

『심리학의 원리』에서 제임스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서 나온 ‘사고의 흐름(stream of thought)’을 이어받아 ‘의식의 흐름(stream of consciousness)’을 강조했다. 개인의식 속에 있는 감각, 상념, 기억, 연상 등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상호침투 하는 의식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전개된다고 주장했다(James, 정양은 역, 2005: 409-411). 이 이론은 『근본적 경험론』(1912)으로 이어지고, 제임스는 철학이야말로 경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사물 사이의 관계는 사물 자체가 아니라 경험과의 관계에서 사실로서 기술되어야 하고, 경험의 여러 부분은 경험 자체의 연속적인 구성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듀이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사상가가 바로 미드이다. 고전 프래그마티즘(classical pragmatism) 가운데 퍼스와 제임스가 듀이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면, 미드는 듀이와 함께 연구하면서 사상적 영향을 주고 받았다. 1894년 듀이와 함께 시카고 대학교로 옮기면서 ‘시카고학파’의 중심인물이 되고, 다양한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듀이와 함께 했다. 듀이가 “1890년대 이래 미드의 영향력은 제임스의 영향력에 필적한다.”(Menand, 김동식·박우석·이유선 역, 2001: 29)고 말할 정도였다.

그 가운데 미드의 사회심리학의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마음, 자아, 그리고 사회』(1934)에서 이를 밝히고 있듯이, ‘사회적 자아’와 ‘공동체’를 깊게 제시했다. 미드가 볼 때, 자아는 집단 속 개인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미 사회적 과정(social process)이라고 보았다. 여기에는 집단의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인 활동도 포함된다. 나아가 이 과정은 자아가 나타났을 때보다 더 정교한 조직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자아 스스로 핵심 요소가 되는 기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자아가 나타나고

존재하는 그 안에서 사회 조직은 보다 더 정교해진다(Mead, 1934: 164). 미드는 지속적인 주체의 반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다수의 목적적 나’에 대해 주목하면서 인간의 자아의식에 대한 상호주관적 관념에 도달하고자 하였다(Honneth, 문성훈이현재 역, 1998: 134). 그러면서 주격 ‘나(I)’와 목적격 ‘나(me)’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동체 개념이 등장하고 제도로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페스, 제임스, 미드와 같은 고전적인 프래그마티즘은 듀이를 통해 완성에 이르지만 1960대까지 침체를 면치 못하다 로티(Richard Rorty, 1931~2007)가 ‘네오 프래그마티즘(neo-pragmatism)’을 제시하면서 듀이를 부활시켰다. 로티는 분석 철학을 해체하면서 ‘대문자 철학(PHILOSOPHY)’을 종언시키고, 언어나 자아의 우연성을 강조하며, 자유주의적 공동체를 주장했다(Magnus, 1999: 273). 로티는 듀이가 쓴 『경험과 자연』(1925a)에서 제시한 형이상학에 동감을 표시하고, 『경험과 문화』로 이름을 바꾸길 바라면서 프래그마티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프래그마티즘에 대한 나의 첫 번째 규정은 그것이 ‘진리’, ‘지식’, ‘언어’, ‘도덕’ 등의 개념과 같은 철학적 이론화의 대상에 적용된 반본질주의라는 것이다. 이것은 ‘참된 것’이란 ‘민기에 좋은 것’이라고 말한 제임스의 정의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제임스의 요점은 진리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두 번째 규정은 당위적인 것에 관한 진리와 존재에 관한 진리 사이에는 어떤 인식론적인 차이도 없고, 사실과 가치 사이에는 어떤 형이상학적인 차이도 없으며, 도덕과 과학 사이에는 어떤 방법론적인 차이도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규정은 대화적인 것 이외에는 탐구에 있어서 어떤 제약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대상, 마음, 언어 등의 본성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제약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으며, 동료 탐구자의 언급에 의해 제기되는 소소한 제약만이 있을 뿐이다.” (Rorty, 김동식 역, 1996: 338-344)

이후 로티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엄격히 구분하고, 프래그마티즘의 낭만적 문예화의 비전을 갖고자 했다. 사적 영역에서 자아의 창조성을 최대한 살리고, 공적 영역에서 잔인성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즉, 개인들은 사적 생활, 즉 실제 생활세계에서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메타포를 활용하고, 세계와의 원만한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이와 달리 공적 영역에서는 고통과 잔인성을 줄이기 위해 인간의 연대성을 증대시킨다. 사적 영역은 사적 나르시즘(private narcissism)이 되고, 공적 영역은 공적 프래그마티즘(public pragmatism)이 된다(Cotkin, 1999: 46).

듀이의 프래그마티즘을 재조명하려는 새로운 조류로 형성되고 있다. 도구적 합리성을 거부하고 사회 비판과 실천 철학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를 ‘비판적 프래그마티즘(critical pragmatism)’이라고 부른다. 푸코(Michel Foucault)의 유사 프래그마티즘(quasi-pragmatism)이나 밀즈(C. Wright Mills)의 해방적 정치의식, 나아가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심의민주주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카드렉(Alison Kadlec) 등의 일군의 연구자들은 이를 본격적으로 종합하고 해석하면서 하나의 흐름이 되고 있다.

비판적 프래그마티즘은 개인과 집단이 선택한 결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협력적인 탐구를 함께 공유한다. 또한 비판적인 변화를 위해 문화를 개방하고, 비판적 탐구로서 지식의 과정을 중시한다. 교육적으로는 해방과 급진 교육학을 위해 반성적 이해를 추구하고, 조직화된 저항으로 협력적 행동과 지식의 힘을 강화하고자 한다(Vannini, 2008).

비판적 프래그마티즘은 무엇보다 듀이의 ‘민주주의 이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비판적 프래그마티

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근원적인 관심이면서 비판이론의 인식인 ‘해방적 인식관심’에 중점을 두는 민주주의이다. 이는 의사소통을 통한 메타적인 인식관심이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비판 공동체’이다. 비판 공동체를 통해 의사소통행위가 이루어지고, 왜곡되고 식민화된 생활세계를 합리화시켜 나가면서 민주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윈주의 맥락에서 공동체의 ‘두터운 연대성(thick solidarity)’을 통한 민주적 자아, 그리고 반성적 탐구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의사소통행위가 심의민주주의 등을 지향하게 된다(Kadlec, 2007: 119).

이상의 프래그마티스트 흐름은 듀이로 흘러 들어왔고 듀이로부터 흘러 나왔다. 사회과교육에서 듀이를 이해하는 것은 듀이가 만들고 듀이 전후 영향을 주고받았던 이들의 사상 전반에 걸쳐 있다. 프래그마티즘은 사회과교육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시민성 개념과 맞닿아 있고 관련 이론을 풍요롭게 만든다. 듀이가 말하는 인간성, 도덕성, 사회성, 정치성의 연계 또한 프래그마티즘의 특성을 통해 시민성과 연계된다(서용선, 2011: 30).

IV. 경험, 탐구, 민주주의 이론으로 다시 읽기 : 범주의 입체화와 역동성

사회과교육에서 거시적이고 메타적인 차원에서 듀이의 프래그마티즘 철학을 보았다면, 교과와의 이론적인 결합은 듀이 생애에 걸친 주요 이론을 구분하면서 이루어진다.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이론의 구분은 경험 이론, 탐구 이론, 민주주의 이론이다.

먼저 듀이의 경험 이론은 사상 전반에 걸쳐 있고 상당한 포괄성을 보여준다. 사실 듀이 사상의 흐름은 자연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의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론적인 갈래가 형성되었다고 봐야 정확할 것이다. 듀이의 경험 이론은 『경험과 자연』(1925a), 『경험으로서의 예술』(1934), 『경험과 교육』(1938a) 등을 통해 나타난다. 여기서 듀이가 말하고자 한 경험은 ‘일상적 삶이 곧 경험’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경험은 생활 속에서 생물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을 가진 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교섭 속에서 보여주는 동적이고 성장하는 경험이다. 즉, 경험은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결과이자 상징이자 보상이라 할 수 있다(LW10: 28).

경험 이론의 배경에는 다윈의 진화론, 헤겔의 변증법적 유기체론, 제임스의 의식론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윈으로부터는 어떤 인간이라도 ‘자연’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헤겔로부터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현상이 합리적인 법칙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변증법적 유기체론’이 들어온다. 다만 헤겔의 시대정신(Zeit Geist), 절대정신(Absoluter Geist), 이성(Vernunft)의 방향과는 반대로, 듀이는 일상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헤겔의 주관적 정신과 객관적 정신의 관계가 듀이의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제임스로부터는 ‘의식의 흐름’을 통한 경험의 성장 원리가 들어온다. 의식의 흐름이 이루어지면 경험으로 하여금 생물학적인 감각이 아닌 심리학적 성장을 가능케 한다. 개별적인 경험이 통일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듀이는 경험과 자연의 결합을 통해서 반이원론의 노선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경험 이론을 끌고 가게 된다. 『경험과 자연』(1925a)에서 자연과 연계된 새로운 경험의 개념을 제시한다.

“경험은 자연 안에(in)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을 지니고(of) 있다. 경험되어지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자연이다. 즉, 돌, 식물, 동물, 질병, 건강, 온도, 전기 등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상호작용하는 사물들은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즉, 이들이 경험되어지는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자연적인 대상이 인간 유기체와 관련된다면, 이들 또한 진정으로 경험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험은 자연 안에 이르고 그 깊이도 있게 된다. 그것은 또한 넓이도 가지고 있어서 그 범위가 무한대로 팽창하게 된다. 그것은 사방으로 확대되고 그 확대는 추론을 구성한다.” (LW1: 12-13)

‘경험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는 듀이의 경험 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전자는 경험 이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 맥락을 수렴하고 있는 개념이라면, 후자는 경험으로서의 예술까지 확대시키고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듀이가 제시하는 경험의 재구성은 몇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험을 ‘지식의 문제로서 경험’을 다루는 것과는 달리 ‘경험과 환경과의 교섭’을 강조한다. 둘째, ‘경험의 주관성’만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듀이는 이를 포함하여 ‘경험의 객관성’도 강조한다. 셋째, ‘과거와 범주 안의 경험’과는 달리 듀이는 ‘실험과 변화에 의한 미래지향적인 경험’을 강조한다. 넷째, ‘개별주의와 일원론적인 경험’과는 달리 듀이는 ‘질적이면서 역동적인 연관성과 연속성으로서의 경험’을 강조한다. 다섯째, ‘경험과 사고의 대립’이 아닌 ‘경험에서 사고와 반성의 충만’을 강조한다. 경험의 재구성은 ‘어떤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으로 이어진다.

듀이의 두 번째 이론은 탐구 이론이다. 반성적 탐구로 잘 알려진 듀이의 탐구 이론은 경험 이론의 한 축으로 오랫동안 연구되어 온 분야이다. 듀이 초기에 이미 인식론적인 접근이나 심리학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노력이 『실험 논리학 논총』(1916b), 『경험과 자연』(1925), 『논리학: 탐구 이론』(1938b) 등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사고하는 방법』(1910), 『인간성과 행위』(1922), 『확실성의 탐구』(1929) 등과 같은 연구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저작들이다.

탐구는 듀이의 방법론 차원에서 제기된다. 퍼스와 제임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의 방법론은 인간 생활 전체와 직결시키면서 탐구를 실천에 옮긴다. 이는 ‘자연주의적 경험론’을 통해 실증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프래그마티즘 차원의 ‘방법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듀이의 방법론은 내용과 통합되어 있고, 사고와 교과와도 일치한다. 나아가 탐구의 과정과 결과를 사고, 반성, 판단으로 표시하기도 한다(MW9: 153-164; MW10: 321). 듀이가 방법론으로서의 탐구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회실천과 자연과학 사이의 균형을 가져오기 위해서이다. 방법론으로서의 탐구는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새로운 경험을 개척하는 도구가 된다.

탐구는 ‘불확정적 상황(indeterminate situation)’으로부터 시작된다. 듀이가 말하기를, “탐구가 발생하는 첫 매듭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짐작된다는 사실로부터이다.”(같은 글, 109)라고 한다. 탐구는 반성적 사고와 문제해결의 과정으로 나타난다. 듀이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하여 인류가 발전시켜 온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자연과학의 실험적 방법’이다. 실험적 방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반성적 사고(reflective thinking)’이다. 반성적 사고는 여러 차원의 것들을 조정하고 조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과 관념을 조화시키고, 연역법과 귀납법을 조화시키고, 행동과 사고를 조화시키며, 과거, 현재, 미래를 조화시킨다(노진호, 1996: 83-93).

반성적 사고가 문제들을 조정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문제해결의 과정은 문제를 둘러싼 구체적인 탐구가 전개되는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 일단 불확정적 상황이 문제 상황이 되고, 통제와 변형의 과정이 문제

해결의 과정이 된다. 문제 상황은 자신이 가진 조건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없다. 자신의 사태에서는 찾을 수 없는 소재를 통해서 사태가 해결되어간다. 문제해결의 과정은 문제 상황에서 실제 사실들을 구분하는데서부터 시작한다.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고려하고, 문제가 이루어지는 전 과정을 고찰하고, 이에 맞는 상황인식과 문제해결의 단계가 제시되어야 한다. 우선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진정성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누구든 직접적 경험 상황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해 차분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문제해결을 위해 사실을 관찰하고 검토하는데 적용된다. 유목적적인 탐구로 결론 도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문제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추론된 미래의 행위로서 예측하고 전망하려는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반성적인 문제해결의 과정으로서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는 것이다(최석민, 2004: 171).

세 번째 이론은 민주주의 이론이다. 듀이의 민주주의는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창조적 민주주의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서용선, 2013a). 듀이 민주주의의 출발은 188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신헤겔주의를 탐구하면서 연구의 중심을 형이상학에서 윤리학으로 옮기면서 민주주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자아실현에 대한 신헤겔주의 윤리학’을 제시하였고(Westbrook, 1991: 33-34), “민주주의 윤리학”(1888)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유기체 이론의 관점에서 민주주의를 보면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들이 상호 간에 내재적 연관성을 가진 것으로 본 것이다. 사회 안에서 모든 개인들은 권력과 능력의 조화로운 진전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를 완성해 가는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as an ethical ideal)’를 지향한다. 듀이는 사회 조직의 통일을 보장하고,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가능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인간의 본성을 진전시키고 정신과 연관된 세계와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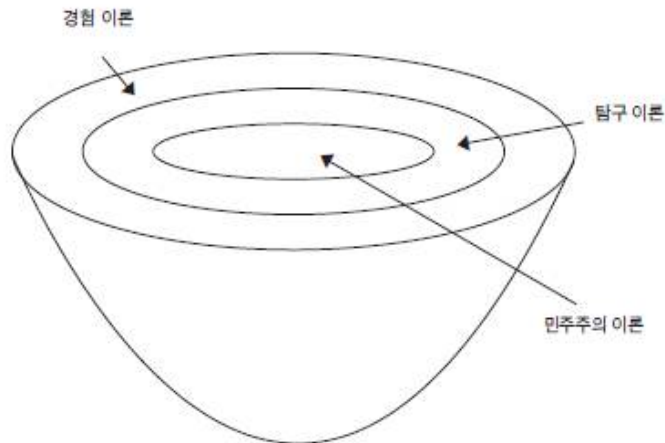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의 내용과 방법 모두 포괄적이면서 역동적이라는 특징을 부여한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부형태가 아님을 말하고 있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MW9: 92). 첫째, 사회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동의 관심사의 수가 많고, 그 종류가 다양해야 하며, 상호 관심사의 인정을 사회통제의 방법으로서 더 중요시 한다. 둘째, 여러 사회집단 사이의 보다 자유로운 상호작용과 사회적 습관이 변화해야 한다. 요소 속에 등장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의 핵심은 ‘관심사’와 ‘상호작용’이다. O'Connor(1999)는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인간과 사회의 관계, 제도, 이데올로기 신념 체계를 평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변화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라고 말한다(1-2). 나아가 사고와 실천 모두를 안내하고, 공동체 생활 그 자체가 된다고 본다.

민주주의와 철학의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듀이는 ‘급진적 경험주의(radical empiricism)’를 통해 ‘경험론적 자연주의(empirical naturalism)’를 도입한다. 듀이는 『경험과 자연』(1925a)에서 제시한 경험론적 자연주의를 토대로 경험을 기반으로 한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 철학적인 토대를 마련한다. 경험론적 자연주의에 결합된 민주주의는 방법적인 측면도 부각되면서 ‘반성적 사고’와 연결된다. 자유, 평등, 박애도 철학적 입장에서 재구성한다. 먼저 ‘자유’는 불확실성과 우연성을 넘어 사회적 교호작용에 의해 더 넓고 깊은 자유가 된다(Westbrook, 1991: 363). ‘평등’도 고정된 질서가 아닌 자연주의에서 말하는 질적인 특이성을 갖게 된다. ‘박애’는 질적으로 독립된 존재들 사이의 사회적 교호작용으로 제시된다.

이후 1930년대 듀이는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통해 ‘새로운 개인주의(new individualism)’를 제시하고 더불어 ‘민주적 사회주의’를 강조한다. 듀이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구조가 중국에 가서

는 비참한 결과를 낳을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서 ‘민주적 사회주의’를 제시한다. 특히,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과 지지를 담으면서 다양한 사회주의적 가치들을 지향할 것을 적극적으로 제한한다(이주한, 2000: 154). 이러한 흐름은 1930년대 말 창조적 민주주의로 등장한다. “개인” 생활의 ‘인격적’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 (democracy as a *personal way of individual life*)’을 추구하는 창조적 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격적 양식으로부터 넓은 배경으로서 한 국가의 탄생과 관련시킨다. 일상을 사는 시민들의 경험과 지혜를 통해 자치가 가능한 사회의 조건을 구성하고 정치 구조를 창조해나가는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험 이론, 탐구 이론, 민주주의 이론은 연속선상에서 결합하고 있다. 연속선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론의 입체화와 역동성은 아래 [그림 1]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림 1] 경험, 탐구, 민주주의 이론의 입체화(서용선, 2012: 154)

민주주의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임하는 시민들에게 경험과 생활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회과교육에서 듀이 이론을 바라볼 때, 시민성을 중심에 두고 경험 이론, 탐구 이론, 민주주의 이론을 핵심적으로 마주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듀이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한다. “민주적인 사회가 되려면 외적인 권위를 거부하고, 자발적인 성향과 관심이 있어야 한다.”(MW9: 93). 시민들은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고 공유하고 의사소통하면서 과학적으로 함께 탐구해 가야 한다. 사회과 시민성교육의 본령은 여기에 있다. 듀이는 이것을 ‘민주주의 방법론’이라고 부른다. 시민성 관점에서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 이론의 토대인 경험 이론이, 그리고 심화하는 역할로서 탐구 이론이 결합된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이론 내에서 창조적 민주주의로 확대되고, 사회적 생활세계로 확대되어 간다.

V. 시민성의 속성으로 다시 읽기 : 사회과 교육목적의 열린 맥락

사회과교육 관점에서 듀이의 경험 이론, 탐구 이론, 민주주의 이론은 시민성의 속성과 연결된다. 경험 이론에서는 질적 직접성(qualitative immediacy), 탐구 이론에서는 사회적 지성(social intelligence), 민주주의 이론에서는 정치적 창조성(political creativity)이 속성으로 제시된다. 먼저 질적 직접성은 ‘경험은 직접적이면서 스스로의 질적인 배경을 갖는다.’는 평범한 진술 안에 들어있다. 여기에는 경험과 자연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경험을 재구성하는 기제가 포함되어 있다. 『경험과 자연』(1925)과 “질적인 사고(Qualitative Thought)”(1930)를 통해 등장한 질적 직접성은 경험 이론에서 중심적이고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정순복, 1990: 6-7). 알렉산더(Thomas Alexander)(1987)도 “듀이의 경험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직접성 또는 질성이라는 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57)고 주장한다.

먼저 ‘직접성(immediacy)’은 19세기 서구 사상의 주요한 모티브로 주지주의를 벗어나 ‘경험의 구체성과 지각의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자연과 인간의 정신적인 삶을 연결하고 경험의 ‘일차성’을 중시한다. 직접성은 확정과 불확정, 인식과 비인식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전체로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듀이는 경험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중추적인 역할로서 직접성 개념을 바라본다. 직접성 개념과 연동되는 ‘질성(qualitativeness)’은 세계가 근본적으로 질적임을 밝히고, 기초적이고 침투적인 성질로 경험의 대상을 조정한다. 또한 질성은 사고와도 깊은 관련을 맺으면서 ‘일차적 질성(primary qualities)’이라고도 부른다. 질성은 하나의 전체로서 연상되는 상황과 맞물려 있고 상황과 사고를 통합적으로 지배한다.

이처럼 질적 직접성은 시민의 생생한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사고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원자론적 다원주의와 보편적 일원론을 거부하면서 개별성과 계속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내적 이중성(intrinsic duality)’이라는 생명력 강한 대안을 제시한다(Yang, 1998: 65-66). ‘직접적으로 주어질 광범위하게 질적인 상황’(LW12: 509)에서 시민성은 파편화된 경험과 지식을 이어주고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한다. 질적 직접성이 있어야만 조사나 명상 그리고 관념적 혹은 논리적 정교함이 가능해진다(LW1: 132-133).

두 번째 시민성의 속성인 사회적 지성은 반성적 사고를 발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탐구 과정에서 도출된다. 듀이가 말하는 방법도 ‘지성에 토대를 둔 실험적 탐구’가 되고, 사고라는 것도 ‘지성이라는 행동과정’으로 나타난다(이군천, 2003: 57). 사회적 지성은 넓은 의미의 추론으로서 문제해결의 도구이자 목적이다. 주변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함양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일 수 있고, 논증이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성은 어떻게든 다양한 모습으로 활용되게 된다(이군천, 2003: 56).

『인간성과 행위』(1922)에서 듀이는 인간성의 요소로서 제시한 ‘습관’, ‘충동’, ‘지성’은 ‘행위의 단위로서 하나의 오케스트라 연주처럼 유기적인 연관 운동을 한다고 말한다. 습관은 행위를 둘러싼 ‘건축 블럭(building block)’처럼, 행위를 통해 기존의 구축된 성향(disposition)이고 또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충동은 인간의 활동을 재조직하고 일정한 방향을 부여하는 역할을 갖는다. 낡은 습관의 성질을 변화시켜 새로운 방향을 부여한다(같은 글, 88). 충동을 통해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와 행위의 지속적인 상승효과가 결국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지점이 지성의 요소가 나타난다.

문제 상황을 재구성하거나 변형하려고 할 때, 지성은 목적이자 수단이 되어 자유롭게 문제 상황에 접

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지성을 통해 ‘직접적인 행위’가 ‘간접적인 행위’로 변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해결의 과정 속에서 지성은 전반적인 조건에 대해 검토하는 통로가 되고, 시험적이고 준비하는 행동으로 안내된다(LW4: 178). 이런 상황은 경험을 재구성하고 성장의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이때 이루어지는 ‘반성적 사고’가 바로 자연스럽게 지성과 연결된다.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인 반성적 사고를 통해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습관, 관습, 제도 그리고 신념과 새로운 조건들 간의 능동적인 관계를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움을 준다.

듀이가 말하는 지성은 ‘경험’ 혹은 ‘자연’과 결합되어 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인간의 욕구와 노력이 어떤 절대적인 외부의 힘이 아니라 경험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능력과 조건에 적응하는 방법으로서 지성을 상징하고 있다. 자연, 즉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연속적인 상호작용을 지성으로 본다. 또한 상식과 의사소통과 공동체 속에서 사회적으로 나타난다. 지성이 과학적이고 실험적인 접근이지만 이는 형식상의 엄밀한 의미를 갖고, 주로는 사회생활 속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탐구로서의 지성’이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이기 때문에(LW13: 22),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 역시 사회적일 수밖에 없다. 지성의 작동 방식도 실험실 내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이루어진다. 지성을 사회 구조의 유일한 수단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김성수, 1993: 114).

사회적 지성은 시민성 개념에 방법적인 측면에서 결합된다. 듀이의 탐구 이론이 주로는 ‘반성적 사고’와 관련해서 일정한 단계로 전개되고, 교육실천에서는 문제해결이라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나타난다. 사고가 모종의 방법이고 목적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적 지성은 바로 시민성 개념의 방법적인 측면과 연결고리가 형성된다.

세 번째 시민성의 속성은 민주주의 이론을 통해 제시된 개성과 인격을 통한 정치적 창조성이다.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민주주의’와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는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창조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재등장한다. 창조적 민주주의는 윤리학과 철학, 새로운 개인주의와 민주적 사회주의라는 흐름을 수렴하는 모양새였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창조적 민주주의’를 ‘개인’ 생활의 ‘인격적’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democracy as a personal way of individual life)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듀이에 따르면, 민주주의를 창조하고자 한다면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조화에 토대를 뒀다. 인격을 가진 인간을 통해 민주주의를 창조해야 진정한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인격과 개성이 발휘되지 않으면서 창조성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정치인들만의 민주주의이고, 선거 때만 이루어지는 민주주의가 된다. 민주주의를 통한 정치적 창조성은 ‘생활 속 경험’으로부터 출발한다. 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민주주의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경험의 과정 안에서 성심 성의껏 믿고 있는 유일한 생활양식이다. ... 민주주의의 실패는 모든 생활양식에서 경험이 확대되고 풍요롭게 만드는 접촉, 교환, 의사소통, 상호작용을 제한하는데 있다. ... 민주주의의 임무는 모두와 공유하고 모두에게 기여하는 보다 자유로우면서도 끝없는 인간 경험의 창조라고 할 수 있다.” (LW14: 229-230)

정치적 창조성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휘된다. 첫째, 민주주의를 생활양식으로 바라보면서, 낡은 아이디어에 대해 ‘새롭고도 실천적인 의미’로 적용할 때다. 둘째, 민주주의를 ‘인간 본성의 가능성 안에 움직이는 신념(faith)’에 의해 조정되는 생활양식으로 바꿀 때이다. 셋째, 민주주의를 ‘지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

는 인간 능력(capacity of human beings) 안에 있는 신념에 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인격적인 생활양식’을 가질 때이다. 넷째, 민주주의를 다른 사람과 함께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인격적인 신념에 의해 통제되는 생활양식을 해나갈 때이다.

정치적 창조성은 시민들 사이에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의사소통하는 사회적 행위 유형을 제시하면서 신념을 가지고 낡은 아이디어들을 새롭게 발산한다. “공유된 경험은 가장 위대한 인간의 산물이다. 의사소통은 결과에 대한 과도한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사물의 의미를 만들어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한다.”(LW1: 159-160)

정치적 창조성의 모티브는 ‘자아실현’과 ‘적극적 자유’이다. ‘자아실현’은 민주주의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인격과 개성을 통한 사회변혁을 이끈다. 자아실현이 기능적으로 발휘될 때, 시민성도 ‘개인의 더 나은 행복을 위해 특수한 개인의 능력과 특수한 환경 사이의 적극적인 관계’를 상징하게 된다. ‘적극적 자유’는 기능적이면서 사회적인 측면을 통해 사회변혁을 이끈다. 시민성으로서 정치적 창조성은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서 더욱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다.

시민성의 속성으로서 제시된 질적 직접성, 사회적 지성, 정치적 창조성은 사회과교육에서 실질적인 내적 논리를 갖으면서 열린 맥락을 형성하게 된다. 실제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성은 하나의 유기체 덩어리로서 귀속성, 내적 복잡성과 개방성, 원형성을 동시에 갖는다. 질적 직접성은 ‘가능성을 가진 경험과 그 대상’을 통해 경험을 출발시킴과 동시에 질적인 사고와 통합된다. 시민과 주어진 사회 환경 사이에서 상호작용과 교호작용이 계속되는 한 사회적 지성으로서의 반성적 사고와 문제해결의 과정은 지속된다. 생활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개별적인 시민들을 보다 인격적이고 개성 넘치는 생활양식을 갖추게 한다면,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정치적 창조성을 갖게 된다.

참고 문헌

- 노진호(1996), **존 듀이의 교육이론: 반성적 사고와 교육**, 서울: 문음사.
- 서용선(2013a), 듀이 사상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흐름과 교육적 변화 양상, **교육철학연구**, 35(2), 49-73.
- _____(2013b), 하버마스 사상에 근거한 시민교육의 방향: 인식관심, 공론장, 의사소통 합리성의 맥락과 의미, **한국초등교육**, 24(2), 25-43.
- _____(2012), **혁신교육 존 듀이에게 묻다**, 서울: 살림터.
- _____(2011), 듀이 프래그마티즘과 사회과교육에서 시민성 개념의 재구성: 인간성, 도덕성, 사회성, 정치성의 유기적 결합, **사회과교육연구**, 18(2), 21-32..
- _____(2008), 시민성교육의 개념 기반으로서 듀이 시민성: 프래그마티즘의 흐름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연구**, 15(3), 89-111.
- _____(2008), '1916년 사회과 보고서'에 나타난 시민성 개념의 특징, **사회과교육**, 47(4), 205-229.
- 이군천(2003), J. Dewey의 교육철학에서 지성의 의미와 인간성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석민(2004), 듀이의 문제해결과 비판적 사고의 관계, **교육철학**, 25, 163-178.
- Alexander, T. (1987). *John Dewey's Theory of Art, Experience, and Nature: The Horizons of Feeling*.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Barr, R., Barth, J., & Shermis, S. (1977). *Defining the Social Studies*. Bulletin 51. National Council for the Social Studies.
- Bernstein, R. (2004). John Dewey and the Pragmatism Century. In E. Khalil (ed.), *Dewey, Pragmatism, and Economic Methodology*. London: Routledge.
- Carpenter, J. (2006). The Development of a More Intelligent Citizenship: John Dewey and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Culture*, 22(2).
- Cotkin, G. (1999). William James and Richard Rorty: Context and Conversation. In R. Hollinger, & D. Depew (eds.), *Pragmatism: From Progressivism and Postmodernism*. Westport: Praeger.
- Dewey, J. (1888). *The Ethics of Democracy*, *EW1*: 227-249.
- _____(1910). *How we think*, *MW6*: 177-356.
- _____(1916a). *Democracy and Education*. *MW9*: 1-370.
- _____(1916b). Introduction to *Essays in Experimental Logic*, *MW10*: 320-365.
- _____(1922). *Human Nature and Conduct: An Instruction to Social Psychology*, *MW14*.
- _____(1925a). *Experience and Nature*, *LW1*.
- _____(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LW2*: 235-372.
- _____(1929). *The Quest for Certainty*, *LW4*.
- _____(1930). "Qualitative Thought." In *LW5*, 243-262.
- _____(1934). *Art as Experience*, *LW10*.
- _____(1938a) *Experience and Education*, *LW13*: 1-62.

- _____ (1938b) *Logic: The Theory of Inquiry*, LW12.
- _____ (1940). Creative Democracy-The Task Before Us, LW14: 224-230.
- Egan, K. (1980). John Dewey and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Theory and Research in Social Education*, 8(2), pp.37-55.
- Engle, S., & Ochoa, A. (1988). *Education for Democratic Citizenship: Decision Making in the Social Studie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Evans, R. (2004). *The Social Studies Wars: What Should We Teach the Children?*.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_____, & Saxe, D. (eds). (1996). *Handbook On Teaching Social Issues*. Washington DC : NCSS.
- Gregg, J. (2013). Moral Problems as Issues-Centered Social Studies Education: Discovering Dewey as a Guiding Found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rogressive Education*, 9(1). pp.41-50.
- _____ (2012). *John Dewey and the dawn of social studies : unraveling conflicting interpretations of the 1916 report*. North Carolina: Information Age.
- Hickman, L. (2007). *Pragmatism as Post-Postmodernism Lessons from John Dewey*.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Honneth, A. (1992). *Kampf Um Anerkennung*. Suhrkamp Verlag, 문성훈 · 이현재 역(1998), 『인정 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서울: 동녘.
- James, W. (1890).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New York: Cosimo, 정양은 역(2005), 『심리학의 원리 1』, 서울: 아카넷.
- Kadlec, A. (2007). *Dewey's Critical Pragmatism*. Lanham: Lexington Books.
- Magnus, B. (1999). Postmodern Pragmatism: Nietzsche, Heidegger, and Rorty, (eds.), Robert Hollinger., & David Depew. *Pragmatism From Progressivism and Postmodernism*. Westport: Praeger.
- Mead, G. (1934). *Mind, Self and Society from the Standpoint of a Social Behavioris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enand, L. (1977). *Pragmatism A Reader*, 김동식 · 박우석 · 이유선 역(2001), 『프래그마티즘의 길잡이』, 서울: 철학과현실사.
- O'Connor, D. (1999). Democracy As a Way of Life: Deweyan Pragmatism and the Challenge of Capitalism for Liberalism in Thought and Practi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Patrick, K. (2013). Social Studies, John Dewey and the Erosion of History. *Prospero*, 19(1). pp.30-40.
- Peirce, C. (1878). How to Make Our Ideas Clear. In L. Menand (1977). *Pragmatism A Reader*, 김동식 · 박우석 · 이유선 역(2001), 『프래그마티즘의 길잡이』, 서울: 철학과현실사.
- Ross, W. (ed.) (1997) *The Social Studies Curriculum Purposes, Problems, and Possibilities*. New York :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Ryan, F. (2004). Five Milestones of Pragmatism. In E. Khalil (ed.), *Dewey, Pragmatism, and Economic Methodology*. London: Routledge.

- Saxe, W. (1991). *Social Studies in Schools: A History of The Early Years*. New York: S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Sleeper, L. (1986). *The Necessity of Pragmatism John Dewy's Conception of Philosophy*.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Stanley, W., & Stanley, W. III. (1977). Dewey: The Role of the Social Studies in Education. *The High School Journal*, 60(8), pp.365-370.
- Vannini, P. (2008). Critical Pragmatism. *The SAGE Encyclopedia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http://www.markfoster.net/struc/criticalpragmatism.html>.
- Westbrook, R. (1991). *John Dewey and American Democrac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Yang, E. (1998). Continuity and Interaction as the Principles of Nature, Experience and Inquiry In John Dewey's Philosophy.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at Buffalo.

한국사회과교육학회 <http://www.kasse.or.kr>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http://www.socialstudies.or.kr>

한국사회과교육학회 <http://www.kase.kr>